

한기총선관위 ‘선거업무중지가처분’ 피소

한기총 위상 땅에 떨어뜨린 선관위 책임론 대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을 했으나 서류 미제출로 거부당한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가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업무중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선관위 제28-8차 회의에서 결의된 “정치자로서의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표회장 후보 등록 시 첨부하기로 한 신원조회증명서(범죄수사경력조회사)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 접수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 목사는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하여 신원정보를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서류를 가지고 있었지

만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전 목사는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 여기에 의하면 신원조회증명서를 낸 두 후보가 오히려 현행법을 어긴 게 된다. 한기총 정관에도 대표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 신원조회증명서를 내라는 뚜렷한 조항도 없는데, 대표회장 후보자들을 범람자들로 만들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큰 결의를 한 것은 특정 후보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난의 시선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선관위가 전 목사의 신원조회증명서 제출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엄기호 목사는 교단 추천서류를 제23대 대표회장 후보 당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일

이다.

한기총 소속 회원 중 한 명은 “순박하기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회원은 “변호사가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으로 있었던 일이 불과 1년 전에 불과한데 또다시 대표회장 선거로 법적 다툼을 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다”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어쨌든 한기총 선관위는 이번 사태로 한기총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한국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한국교계의 목소리다.

한기보협, 2018년 신년하례예배

금년을 ‘성경의 보수원형 찾기’ 원년 삼기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2018년 교단장 및 교계지도자 신년하례예배를 지난 1월 11일(목)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드리고, 성서의 보수원형찾기 원년으로 선포했다.

예배는 민정식 목사의 사회로 신한철 목사의 기도, 박종열 목사의 성경봉독, 지왕철 목사의 설교, ‘국가의 안정과 통일’, ‘동 협의회’,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특별기도에 이어 사금열 목사의 한글기도, 이범성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동 협의회는 가입교단장과 복귀교단장에게 가입패와 복귀패를 전달했다.

대표회장인 지왕철 목사는 ‘시대의 이상’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보수원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언제라도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상대적인 자리에 있는 역사적 보수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원형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



질 수 있다”면서, “역사적 보수는 진정 성경이 말하는 보수의 원형에 대한 관심이나, 실체가 무엇인지 알리고 하지도 않은 채 아무로 언제라도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상대적인 자리에 있는 역사적 보수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원형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

경고했다.

한편 동 협의회는 복음의 본질 회복을 비롯한 교회의 본질 회복, 예배의 본질 회복, 제물 드림의 본질 회복, 목양의 본질 회복,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 회복 등 성경보수원형 찾기 운동을 벌여 왔다.

화해중재원 23일 제8차 정기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1월 23일(화) 서울시 연지동 한국기독교교연합회관에서 제11차 정기이사회 및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협의, 화해조정, 중재 등 업무 및 주요 사업의 보고가 이뤄졌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임원 및 이사, 감사 선임 등이 이뤄졌다.

화해중재원은 2008년 3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 및 교회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1년 11월에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7월 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중재원을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과도 법원연계 조정업무협약

을 맺어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해중재원은 당사자가 직접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사건의 조정 및 중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의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중재원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교회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교회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교회적 및 법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6월에는 포럼을, 10월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예장보수개혁정통, 신년하례예배

섬김의 진리 통해 영혼구원에 앞장서자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개혁정통)총회(총회장 오선미 목사)는 지난 1월 13일(토) 오전 11시 동 총회본부에서 2018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교단성장과 발전을 위해 총대원들이 합심해 기도토실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하례예배는 서기 전귀만 목사의 사회로, 전 목사의 대표기도, 부총회장 정춘자 목사의 성경봉독 고본 민희라 목사의 특송, 총회장 오선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오선미 목사는 수 14:6-15 말씀을 본문으

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고 말하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려한 산지로 나가 희생과 섬김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자”고 강조했다.

예배는 계속해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핵폐기를 위해’ 감사 김동호 목사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회복서기 이채구 목사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부회계 박외선 목사가, ‘총회와 신학교와 지교회를 위하여’ 회계 전명선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사)예장연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축사, 부서기 장지은 목사의 한글기도, 총회장 오선미 목사의 인사 후 수석고문 임정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말씀 순종이 소망입니다’…새해에도 헌신할 것

(사)한기개협 등, 2018년 신년하례예배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이하 한기개협),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이하 한개협), (사)세계개교회연합회(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이하 세계연) 등 3개 단체는 지난 1월 15일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합동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더욱 합심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세계연 상임부총재 노준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세계연 총재 김관현 목사의 기도, 예장합동 부총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개혁 중장단의 찬양과 예장정통 총회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 연주, 한기개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이날 신 30:1-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말씀 순종이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복 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예배는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연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3개 단체 발전을 위해’ 한기개협 이사장 김경태 목사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예장기도총회 증경총회장 김성

한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3개 단체장을 대표한 예장개혁총회 강희준 목사의 인사, 한기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사와 마친 후 오찬 및 한잔을 갖고 단체발전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의약품 전달식 예배 드려

(사)탈북동포지원연합, 두 곳 단체에 지원

(사)탈북동포지원연합(이사장 원종분 목사)은 지난 1월 3일(수) 오후 1시 경기도 가평군 소재 열린교회에서 한민족연합선교회(대표 정정원 목사), 뉴코리아여성연합(회장 이소연 집사)에게 열린교회 성도들과 교계지

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이뇌음 목사(한민족연합선교회 이사장)의 기도, 김만태 목사(탈북동포지원연합 본부장)의 성경봉독, 양

희숙·양미순 선교사의 특별찬양, 이사장 원종분 목사의 장 11:24-25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나눔수록 부하게 된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원종분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계화된 일을 할 때 항상 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며, “우리는 항상 나누며 살아야 하며 줄 때에는 아끼운 마음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면 곡간을 부하게 채워준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눔 생활로 하늘에 상급을 쌓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 김희선 목사(통합피어선 총회장), 김바울 목사(예장호전 증경총회장의 격려사, 정정원 목사(한민족연합선교회 대표회장)·이소연 집사(뉴코리아여성연합 회장)의 인사 말씀, 의약품 전달식 후 원종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번에 전달받은 의약품은 세계 땅끝 오지 지역에 전달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회 발전 이룩할 것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신재원 목사)는 지난 1월 11일(목) 오전 11시 춘천 동신장로

교회에서 2018년 신년교례회를 갖고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회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을 다



집했다.

1부 예배는 수석부회장 김종일 목사 사회로 부회장 김정호 장로의 기도,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찬양, 회장 신재원 목사의 요 10:14-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직전회장 박상철 목사의 축도 후 열린 축사 및 기관소개 인사는 수석부회장 김종의 목사의 사회로 이어서 목사의 환영사 후 최동용 춘천시장, 김주열 춘천시의회장, 김진태 국회의원이 각각 축사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애잔과 친교시간을 갖고 춘천지역발전을 위한 환담을 나누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되자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해 12월 26일(화) 아산 새소망교회(담임 진등용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현덕 목사(주교소망교회담임)의 기도 증경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설교 김재석 목사(동산교회담임)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등용 목사는 본문 4:7-11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의 준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사랑해야하고 그리고 봉사해야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종교교세에 대해

토론을 하고, 새소망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오찬을 나누며 12월의 월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참된 부흥을 이루는 2018년 위해 기도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1월 9일(화) 순복음아산교회(담임 차흥식 목사)에서 2018년 첫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안홍규 목사(한사랑교회)의 대표기도, 회장 차흥식 목사의 설교 증경총회장 진등용 목사(새소망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차흥식 목사는 요 14:6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이해의 오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현 세대는 많은 이단들의 미혹으로 성경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니, 먼저 목회자들이 바른 성경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그리스도의 진리되심을 증거하자.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통하여 어두워진 이 시대를 밝히며 각 교회마다 참된 부흥을 이루는 2018



년이 되자."고 하였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2월에 가질 예정인 오산 성막모형현장방문에 대한 논의를 하

고 아산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오찬을 나누면서 2018년의 첫 월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1월 4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빈송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서미곤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재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남교회)의 헌금기도, 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순복음세움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와 차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며 올 한해 놀라게 역사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고 헤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다짐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1월 11일(목) 오전 11시 순복음감람리교회



(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기도, 홍현철 목사의 성경봉독,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빌 4: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능력의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회계 박영옥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헌금기도, 최성진 목사(울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순복음감람리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휴가철 원로목사의 사모가 대접하는 풍성한 식사를 나누면서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환난가운데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될 것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는 지난해 12월 18일(월) 오전 11시 연천순복음교회(임영광 목사)에서 12월 정기월례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교회)의 기도, 서기 임형순 목사(아펜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마 1:18-25), 지방증경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마 1:18-2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자이며,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한 예수님을 모셔 들이는 사람이다. 목회자는 어떠한



환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고 축복이다."라고 당부하며 축복했다.

이어 재무 안재봉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헌금기도, 총무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광고에 이어 지방회 증경회장 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증경회장 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기도 후 각부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계속된 교제시간에는 연천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회원진전을 도모하는 찬사 대회와 선교사 후원을 위한 바자회로 교제를 나누며 은혜기운에 월례회를 마쳤다.

2017학년도 제63회 졸업예배

전북신학교

예하성 전북신학교(학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1월 18일(목) 오전 11시 예하성전북신학교 대예배실에서 제63회(본교 제 17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예배는 김바울 목사(영은 은혜외전교회)의 사회로 황인근 목사(순복음전주세계로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김종호 목사의 장 39:19-23 말씀을 본문으로 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에는 학장 최병진 목사가 졸업생 구복숙 외 12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최규민 외 3명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학장상: 최규민 ◇전북서지방회장상: 전북서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격려사, 재학생 대표 김영진 학우의 송사, 졸업생 대표 고재운 학우의 답사, 윤갑철 목사(전북경찰청 경목실장)의 축도로 졸업예배를 마쳤다.

이날 전북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의 축사,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2018년이 되길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1월 11일(목) 11시 순복음목자교회(김형식



바목사 사무)에서 신년예배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석인권 목사(하늘사랑교회)의 사회로 서기 차재현 목사(엘벤엘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엄기

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엡 6:10-20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전쟁과 완전무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2018년에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전투에서 승리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권면하였다.

이어서 증경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의 헌금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에서는 엄기설 목사의 사회로 차재현 목사의 회원점명, 석인권 목사가 총무보고를 한 후 종교인교세와 관련하여서 엄기설 목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식사교제를 나누었으며 안보교육차원으로 롯데 시내미에서 '강철비' 영화를 시청하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관람 후에 회원들은 전통찜뽕집에 모여서 중국 음식을 함께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지방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선한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1월 9일(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중앙길 1-45에 위치한 순복음임마누엘교회



(담임 신동숙 목사)에서 신년하례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정미자 목사(셀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찬송인도에 최정용 목사(믿음교회), 대표기도에 서성령 목사(성지교회)와 특송에 특별출연한 김규연 학생과 목

회자 사모일동의 찬양 순서가 있었고, 성경봉독에 서경오 목사(복있는교회), 증경회장 김기인 목사(벤엘교회)의 설교로 록 13:1-9 말씀을 본문으로 '2018년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로 회개의 열매와 선한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케 되기를 강조함으로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헌금기도에 김효신 목사(진양교회), 끝으로 회장 신동숙 목사의 축도로 예배순서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회무 시간을 가져 지방회 제반 업무를 논의하였으며, 또한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도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마지막 순서로 임마누엘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신년하례 및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김 상 용 목사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 교단 중경총회장
- 청주지역기독교연합회장 역임
-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역임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민음의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민음의 행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민음의 결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게발을 하자'리든지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이며 의지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신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게발이나 신념은 육신적이며 자신의 것이지만 믿음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겁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 6:12)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용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꿈도 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 실제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믿음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타당하여 용납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습이나 전통과도 상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은 바로 앞부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바라는 것들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 11:1-3)

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실체)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없기에 바라보았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그 모습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롬 8:24)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였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나타난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믿음은 미래를 담겨서 현실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2절)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진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이는 믿음의 영웅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열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대로 믿고 나갔을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보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열조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

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으며,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열조들의 믿음의 결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도 믿음의 열조들처럼 믿음의 결과를 현실로 이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3절)는 말씀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 1:3)로 시작되는 천지창조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의 질서를 세우고 보기에 좋게 배치하며 완성하고 장식하신 모든 것을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세상은 스스

로 생겨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는 천지창조의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선재(先在)했다는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2)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까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기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목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데, 아직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예 22:12-13)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다 보면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린시 푸산현에 있는 진단당 교회를 강제로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슬람의 탈레반들이 석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최근에 법원에서는 판사들끼리 험한 욕을 퍼부어 대는 추태를 부린 바 있다. 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려 하는가?

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판결을 하기 바란다.

동 정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취임 감사예배



지난 1월 14일(주일) 서울 용산 국군중앙교회(이석영 목사)에서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드려졌다. 제25대 이정우 목사의 이임 및 제26대 김성일 목사의 취임 예배로 드려진 이 자리에는 육·해·공군·해병대 기독신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덕훈 총장, 대한경영학회 취임



한남대 이덕훈(사진) 총장이 제30대 대한경영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학교 측이 지난 1월 19일(금) 밝혔다. 대한경영학회는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문사회 분야 국내 최대 학회다. 이 총장은 “대한경영학회를 아시아 최고의 학회로 만들기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문안교회 이상학 담임목사 위임



새문안교회 제7대 담임목사에 이상학 목사가 선임되어 지난 1월 14일(주일) 서울 종로구 연더우드 교육관 분당에서 위임식을 가졌다. 미국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목사는 새문안교회에 부임 전 포항제일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한다고 말했다.

한직선 새 이사장에 윤여웅 장로



한국기독교직장선교회(한직선·대표회장 박현규 장로)는 지난 1월 13일(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한직선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윤여웅 장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윤 이사장은 “전국의 지역·직능 단체와 연계해 직장선교의 불을 지피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매우 우려된다.

이는 제1,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지적이 없다고 각시시켰으나, 대법원이 일부 내용을 뒤집는 바람에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뒤돌아 왔고, 작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내 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그리고 최근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다시 고등법원까지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도로법 시행령’ 제66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보면 제5항에서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항에서는 ‘(1항부터 11항까지)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

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길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만약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되며 사랑의 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초구청에서 도로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서초구의 허가과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하여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게 완성되어 이미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다. 과거 종자연이 속한 B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 시켜준 사례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저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목양시사

인권이 정치의 전유물인가?

‘인권조례’가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조례 행위인지,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전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인권조례’가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조례 행위인지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전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소위 ‘인권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붓물을 이루고 있다. ‘헌법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만들려는 ‘인권 조례’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원인 부호와 특정 정파적/정치 성향을 띠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현재 지자체들이 ‘인권조례’에 담으려는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성적지향’(동성애 성전환 등)과 ‘다양한 가족 형태’(동성혼 포함) 그리고 ‘종교’ ‘매체’ 이슬람, 사아비 종교 등)와 ‘사상’ ‘전과’ 등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인권’을 담은 ‘조례’들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것으로 위법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업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기준의 통일을 요하는 국가 사무는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를 위임하는 ‘상위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를 위임하는 상위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근거로 앞 다투어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안달이거나 특정 정당의 색채에 따라, 위임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소위 인권이 포함된 ‘조례’를 만들거나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조차, 이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2년 인권위가 지자체에 보낸 <인권조례 제(개)정권고>의 부록에 있는 “표준 인권 조례 해설서”에서도 ‘인권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하는 조례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조례 행위인지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전유

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아무리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여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남들이 하니 유행처럼 따라가는 지자체 행정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자체장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의원들도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조례’ 제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지자체들이 법률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유훈증도 감당해야 한다.

이제라도 각 지자체들은 상위법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인권 조례’를 만드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인권조례’를 만들 분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 ‘떼 법’처럼 몰고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이며, 국민들에게 불신을 쌓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이 범하는 실수에 대하여 언제나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

장기기증-노원구 구청·교구협, 협약체결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교류 갖기로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와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 노원구 교구협의회(회장 성광재 목사)가 지난 1월 10일(수) 오후 3시, 노원구청 구청장실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본부와 노원구 교구협의회, 노원구청장은 생명나눔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기관 간의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노원구의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원구청이 적극 추진한 결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은 김성환 구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개 기관의 협약서 서명 및 교환식이 진행됐다.

노원구 교구협의회는 협약을 통해 앞으로 ‘생명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원구 교구협의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노원구청은 노원구 교구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홈페이지, 정기 간행물 등에 본 협약의 내용을 게재하고 생명나눔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노원구청장은 지난 2012년, 본부와 ‘생명나눔운동’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기 기증 홍보활동에 앞장서왔다.

본부 박진택 이사장은 “생명나눔운동을 위해 앞장서온 노원구와 함께 생명나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원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장기기증 운동의 물결이 퍼져나가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베텔성서 성서편 지도자강습회 개최

오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공주에서

한국베텔성서연구원은 오는 2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충남 공주시 소재 공주 주온센터에서 베텔성서지도자강습회(성서편)를 연다.

이번 강습회(성서편)의 강사로는 홍경만 교수(구약), 남상준 교수(신약)이며, 목사·사모, 전도사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등록비는 12만 원이며, 개척교회 및 미지립교회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베텔성서 성서편 교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구속사 관점에서 한 눈에 파악하도록 공부하는 과정이다(구약 20과/신약 20과, 총 40과).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거나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경이라는 큰 숲을 파악하는 가운데 성경의 맥을 잡아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도와준다.

또한 성서의 주요 개념을 각 과별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림과 개념카드를 보조 교재로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성서편 교재는 한국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경 이해를 통해 건강한 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해줄 것이다.

한편, ‘베텔성서연구’ 프로그램은 교단을 초월해



서 초교파적으로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세계적인 성경교육 과정이다.

한국베텔성서연구원은 1974년부터 43년간 ‘베텔성서연구’ 프로그램(성서편, 생활편, 신앙편, 구원편, 예배편, 자녀교육편)을 통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교육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말씀에 기초한

튼튼한 기반 위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꾸준히 섬겨왔다.

300여 회의 지도자 강습회를 통하여 45개 교단 1만 6천여 명의 목회자가 베텔성서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47만여 명의 성도들이 베텔성서를 공부하였다(02-3789-4276).

인보총, 제26대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제26대 취임 이웅세 목사, 제25대 이임 김민교 목사

인천광역시 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이하 인보총) 제26대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월 16일(화) 오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소재 세계로교회(이웅세 목사 사무에서 정, 교계 지도자 및 관계자와 성도들이 교회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드려졌다.

1부 예배, 2부 총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상임회장 박만국 목사(신원영광교회)의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증경총회장 정일량 목사(향기로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전종진 목사(보라교회)의 성경봉독, 성결대교수 박상국 집사(세계로교회)의 특송에 이어 한남노회 노회장 이두형 목사(서인천교회)가 ‘승리의 아침을 바라보는 지도자’(창 32:28-31)란 제하로 설교했다.

설교에서 이목사는 “하루에 엄청난 고생과 고민으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 친후 희망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인천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도 주께서 능력과 환경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교회를 크게 발전시키고 희망을 주는 보수연합으로 모두가 함께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부흥 발전 성장하는 한 회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안길선 목사(새인천교회)의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2부 총회장 이·취임식에서는 공동회장 박수병 목사(대흥교회)의 사회, 공동회장 장상길 목사(주사랑교회)의 기도, 제26대 총회장 김민교 목사의 이임사, 이임목사에 공로패증정, 서기 천창대 목사(하늘소망교회)의 총회장 소개, 제26대 총회장 이웅세 목사의 취임사에 이어 취임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KJV 딤후2:3

훌륭한군사

제6기 훌륭한 군사를 모집합니다.

대상 | 청년(20세-35세)

일시 | 2018. 2. 14(수) - 17(토)

장소 |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송평길 105-7

신청 | 010-5145-3816 기호선복사

주관 | 엔학고레미니스트리

ENHAKKOREMINISTRY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한 해 소망

신년하례예배 및 월례회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장영기 목사)는 지난 1월 18일(목) 오전 11시 풍암순복음교회(담임 조원재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 및 월례회를 가졌다. 새해를 시작하여 1월 중순이 지났지만 신년하례 예배라는 마음이 웬지 마음을 설레게 했다.

예배를 드려러 오신 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들이었는지 다들 상기된 얼굴로 10시 30분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한바디씩 덕담을 나누며 웃는 모습들은 그야말로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지방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조원재 목사의 모습처럼 교인들이 환하게 맞이해 주며 맛있는 떡과 과일 음료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어서 처음부터 다들 행복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11시에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최정식 목사의 기도, 회장 장영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장 목사는 고후 5:17-19 말씀을 본론으로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뒤 하례식을 마치고 2부 월례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의 말씀을 증거한 뒤 하례식을 마치고 2부 월례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광주지방회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총회와 지방회를 비롯하여 목회자와 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월례회와 더불어 함께하기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뜨겁게 한마음 한목소리로 2018년에도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지방회 그리고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지방회 중경회장 주덕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풍암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삼겹살구이와 오리구이 등 풍성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모두 다 헤어지기 아쉬워 이번에도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다음 달 2월에 순복음공산목양교회(담임 김정식 목사)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안동성곡교회(담임 강태진 목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란 주제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열었다.

이날 개회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태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정인철 목사(선석교회)의 대표기도와 중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주제의 말씀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어진 첫 시간의 특강은 중경회장 강태진 목사(주전양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본분을 지키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란 말씀으로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저녁식사 후 성령충만 기도회 시간은 지방회 회계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말씀과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성령충만 받아야 신앙생활이 견고해진다고 기도회 무장하자고 목회자들의 안수 기도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새벽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말씀으로 아사와 같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도 하나님께



붙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였다. 아침식사 후 이어진 두 번째 특강은 정진학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순결"이란 제목으로 내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순결을 지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였다.

이어진 세 번째 특강에서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차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오후 시간은 안동 암산유원지 일출골 방판에서 스케이팅과 썰매를 타며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저녁식사 후 둘째 날 성령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말씀으로 아사와 같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 새벽 예배는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말씀과 간증으로 시작하여 이항구 목사(주전양교회)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신재경 목사(세강교회)의 말씀에서 자존감은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높이고 회복된다고 강조하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김광동 목사(삼마루엘교회)의 사회로 폐회예배가 시작되어 김경면 목사(순복음평화교회)의 대표기도와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의 그리스도의 자존감은 성령충만 할 때 회복되고 높여진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신재경 목사의 축도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꿈을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 감당

신년 첫 월례회...성민병원과 업무협약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이창모 목사)는 지난 1월 18일(목) 오전 11시 학원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에서 2018년 신년 첫 월례회를 갖고 새로운 한 해를 하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 한해 더욱 충성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회원 서로를 격려, 축복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성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 허드보라 목사(인천성분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어졌다.

이목사는 장 37:1-11 말씀을 본론으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노도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계속해서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의 부흥과 성령충만을 위해서 전 회원들이 한마음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고 회계 이한숙 목사의 헌금기도 후 학원순복음교회 담임 정진균 목사의 광고,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광고시간에는 학원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와 인천 성민병원 간에 업무협

약을 맺고 지방회 신하 교회를 비롯 교단 신하 교회들도 이음을 원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대폭 합인하여 각종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곧바로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 주재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교단 신년하례 및 실행위원회 내용들을 상세히 전했으며 특히 종교인과세 세부내용들을 회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월례회를 모두 마친 후 회원들은 프라이머리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학원순복음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섬긴 오찬을 함께 했으며 이어 불림대회를 갖고 회원 모두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저지, 바른 복음 전파

제4회 목회세미나 1박 2일간 양평에서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1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1박 2일간 양평한화리조트에서 제4회 목회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자의 바른 정체성 확립과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무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

1박 2일 동안 팍팍하지 않고 여유 있는 일정이 되도록 말지 않은 양평에 세미나 장소를 정하고, 시기적으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전에는 지체 내에서 강사를 선정하여 강의를 들었다면 이번 세미나는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목사는 요 9:4 말씀을 본론으로 '지금 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위해 준비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역자로서 더욱 성숙해 지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진 특강시간에는 모든 목회자의 뜨거운 관심사인 '종교인과세'에 대해 김덕영 목사의 강의와 '사랑의 수화' 분장부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세미나 후 돌아오는 길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두물머리에 들러 이 나라의 이념과 사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기를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올해로 4회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회 목회세미나에 참여한 회원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유익한 시간이 됨을 감사드리고 목회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모든 일정을 은혜기운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다음 세미나에도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하길 것을 기대해 본다.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사단법인 예장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로 출범

2018년 신년하례 및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예장 총연 고문, 상임회장, 임원 취임 감사예배

성경대로의 복음전파 한마음으로 기도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1월 16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8년 신년하례 및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예장 총연 고문, 상임회장, 임원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하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의 본질회복과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모임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상임회장 장승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의 대표

기도, 총무 김광제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합동보수 총회 임원 일동의 찬양, 합동개회 총회 장희선 목사의 국악찬양, 고문 김광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로 열린 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난해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상임회장 김광호 목사의 축사에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국가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 '사회 및 문화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 교회 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사단법인 예장총연을 위해' 변관능 목사, 차득환 목사, 한순용 목사, 임은선 목사, 오선미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고문 송기호 목사와 고문 육옥수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자문위원 박용기 목사의 격려사, 회계 김마리 목사의 헌금 기도, 고문 김기형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가



운데 마쳤다.

2부 임원 취임식은 상임회장 이강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도위원 안병삼 목사의 기도, 고문 김기형 목사가 대표이사 이광용 목사에게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법인이사 감사 취임패 증정, 고문 추대장 고문 추대패 전달, 상임회장 추대장 및 추대패 전달, 총회장 취임장 및 취임패 전달, 자문위원과 지도위원 위촉장 및 위촉패 전달, 임원 임명장 임명패 전달, 위

원장 임명장 등을 전달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며 서로 격려했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예장총연합회가 예장총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더 폭넓은 연합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더욱 말씀중심의 사역을 펼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회원 교단 회원 모두를 축복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국제선교협회 이사장 최창일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8년도 목사고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2. 5(월) ~ 6(화) 오전 10시

■ 장소 :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장 목사 김양인 고시위원장 목사 김인규
총무 목사 엄기설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에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9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한 명 전 목사)



에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안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에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총회 신학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n@naver.com

(학장 최 병 진 목사)



에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on@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에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ASSEMBLIES OF GOD

성령의 은혜가 나라와 민족 위에 가득하기를

한국기독교영풍회 제35대 대표회장 신석 목사 취임

한국기독교영풍회 제35대 대표회장 신석 목사 취임 및 신년하례회가 지난 1월 20일(토) 서초호민교회에서 열려 훈훈한 이 시대에 한 회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 신석 목사의 취임 축하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자'란 기치 아래 36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온 한국기독교영풍회는 이번 35대 대표회장 취임을 통해 더욱 열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한국교회에 가득하도록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표회장 신석 목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풍회의 전통을 이어 맡겨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상임회장으로 추대된 정상업 목사의 사회로 영풍회기 입장으로 시작된 예배는 이목자 목사의 대표기도, 최원수 김미숙의 특송, 18대 증경회장 김기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이란 제국의 설교를 통해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회계 김진목 목사의 헌금기도 후 한국교회



부흥과 일치, 영풍회와 회원교회를 위해 조려자 목사, 오종석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2부 취임식은 상임총무 우충희 목사의 사회로 총감사단장 서태섭 목사의 기도, 신석 목사 약력 및 가족소개에 이어 김기성 목사가 취임패를 증정했다.

회장단 및 실무임원에게 신석 목사가 임명패를 전달하고 총본부장 이규봉 목사의 인도로 신년인사를 나누고 케이크팅으로 순서를 마쳤다.

이날 취임식에는 최보기 목사, 한영훈 목사, 엄신형 목사, 김수을 목사, 김정일 목사, 박종철 목사, 김찬양

목사, 라성렬 목사, 김병수 목사, 이기안 목사, 이준만 목사, 한병기 목사, 편무인 목사, 조예환 목사 등 증경 회장들이 참석해 축하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했다.

주요임원은 △상임회장 정상업 △성회회장 이목자 △부총회장 이필재 △선교회장 최민수 △선외회장 조려자 △기획회장 지미숙 △교육회장 전중서 △수석홍보회장 강예스터 △총본부장 이규봉 △총사업본부장 박병식 △총감사단장 서태섭 △사무총장 권영만 △서기 김창호 △상임총무 우충희 △회계 김진목 △회의록서기 김주석 △감사 한병기 목사 외

CTS 고장원 신임 사장 취임 감사예배 드려

고 사장, "한국교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

CTS기독교TV(회장 강경철, 이하 CTS)는 지난 1월 19일(금) CTS 멀티미디어센터에서 고장원 신임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임재환 CTS 사목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CTS 공동대표이사 전명구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공동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 총회장 장자남 목사(온천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 총회장 김경서 목사(예주영락교회)와 김동엽 목사(목민교회), 변창배 사무총장(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등이 순서를 맡았다.

또한 이진호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을 비롯한 CTS 주주요단 대표들과 함께,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소강석 목사(사예텐교회), 김성연 사관(구세군한마음교회), 최형민 숭실대학교 연구산학 부총장, 안기석 문화체육관광부 중무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취임하는 고장원 사장에게는 CTS 사장 취임패와 명패가 수여됐으며, 직원들이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강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CTS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한 모든 부서를 두루 경험한 고장원 사장은 복음전파와 영혼구원, 다음세대 살리기라는 CTS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적인자"라며, "CTS가 한국교회 연합으로 세워진 미디어로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국가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고장원 사장을 위

해 기도와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장원 사장은 취임사에서 "기도와 사람으로 후원해 주시는 수많은 영상 선교사들로부터 사랑받으며, 공교단 연합으로 세워진 CTS에 담긴 연합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한국교회와 교단을 섬기는 CTS가 되도록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며 "순수복음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과 CTS 공동대표이사 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존경하는 강경철 회장님의 눈물과 모범의 헌신을 본받아 헌신과 열정의 사역자가 되며, 함께 부름받아 사역하는 CTS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CTS 사역 현장을 신나고 즐겁게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출산장려와 양육, 미디어 선교 생태계와 미디어 목회의 새로운 변화 등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존귀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전명구 공동대표이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라하신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고통,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라며 "취임하는 고장원 사장과 기도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축복을 하라하시길 간구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달려온 길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CTS와 모든 임직원들에게 임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 2월19~21일 개최

"아픔이 치유되고 비전이 발견되며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질 것"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자녀모신분(일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가 2월 19~21일 경기도 평택 오산성온도산에서 개최된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 사명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다. 모든 부모들과

같이 목회자도 목회자이기 전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마음은 그 어느 부모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목회자자녀는 목회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성도와 같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적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이 그러하듯이 넉넉하

지 않은 경제적 현실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어서 힘든 성장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자녀모신분이 주최하는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는 목회자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존귀한 사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홀트아동복지회 · KB손해보험, 미혼한부모가정 지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와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화)은 미혼한부모가정에 학습물품을 지원하는 '365키즈'트 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65키즈'트는 미혼한부모가정에 학습물품을 지원하는 의미와 더불어 아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보호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2011년생), 초등학교 2학년(2010년생)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정으로, 지원되는 물품은 가방과 학습교재, 학습용품이다.

대상자 모집은 1월 26일까지이며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h:https://www.holt.or.kr/front/news/04.01.26/397761)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기감 2016년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 무효, 직무대행 체제 후 사태수습 예상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사실상 직책을 잃게 되었다. 법원이 지난 2016년 실시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지난 1월 19일(금) 오전 10시 2016가합38554 원고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청구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선고 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경열 후보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문제와 △서울남연회에서 512명에게 선거권을 준 문제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가 무효임을 선고했다.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향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온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화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향리향오일, 워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뭉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문둥전후/문전지/수험생/경부자적립)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구주소나무오일,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날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이버터, 마카데미아씨오일등

⑨ 젤뮈케어 림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음과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긋한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자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ACTS 신대원동문회 신년하례로 모여

“동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따라갑시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 이하 ACTS) 신대원동문회 신년하례감사예배가 지난 1월 11일(목) 양평 ACTS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덕성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염창선 목사(증경 동문회총무)의 대표기도에 이어 ACTS 김성진 교수(구약학)가 삼상 16:7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교수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닌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나 가짜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기고도 변명으로 일관해 미한 것”이라며 “그러나 다윗은 세상법정으로 보면 더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나단과 갓선지자의 죄악에 대한 책망에 두 번 다 꿰어 엎드렸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정받는 진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CTS동문들이 외적인 크고 화려함과 유명세를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좇아가는 진실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될 것을 믿는다”며 짧지만 강력한 울림을 주는 말씀을 전했다. 김인성 목사(증경 동문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에 참여한 김영철 목사(ACTS 15기 회장, 꿈꾸는 변영교회)는 “ACTS 신년하례회에 오니 감회가 새롭다며 고향에 온 듯한 푸근함이 있어서 좋다”며 “안수를 받은 국제독립교회연합회의 동료들을 보면 느끼는 따뜻함을 동문회에서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동문들 중 각 교단과 카이캄 등에 소속된 분들도 많지만 소속을 떠나서 초교파신학교의 동문으로서 그저 좋은 만남의 시간”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ACTS MDiv 출신 최초 카이캄 안수자 임우성 목사(ACTS 1기,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사무총장)는 “학교와 동문회가 세상시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헌신한 이 시대를 거룩함으로 선도해 나가는 선지동산과 목회자들이 되기를 전 동문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김성진 교수는 미국 보스턴 Gordon-Conwell Seminary에서 M.Div.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구약학(집언 전공)으로 Ph.D.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구약의 지혜서(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사)와 시가서(시편)이다.

美 풀러신학교, 코리안 센터 공식 개원

미국 풀러신학교가 한시각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코리안 센터를 공식 개원한다. 풀러는 그동안 신학대학원 내에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 선교대학원 내에 한국학부를 운영해 왔다. 이 두 종류의 한국어 과정이 이제 코리안 센터 안에서 함께 진

행되는 것이다. 코리안 센터 측은 “두 학교를 연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지원을 지원하는 사역을 맡는다”고 밝혔다. 코리안 센터의 원장은 김창환 교수가 임명됐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생명다하는 그 날까지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마다 잘나고 똑똑하고 아집을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등등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크개는 요한을 부르시고 분초마다 타는 유랑불로 떨어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도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속

에서 부름받고 사명받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써 오다가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학장 (평내 순복음교회) 박영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 감사 드립니다. 한영훈이 전하보다 귀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김용기목사 (안동시에덴교회)초청으로 지난 24일 영하의 날씨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새벽미팅의 시간을 불파하고 멀리 안동까지 오셔서 안동지역 초교파목회자들을 위하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 가족세트전도로 안동시 송현동 육군사단 건너편 상가를 상점 상점마다 둘러 크고도 넓고 높고 존귀하게 시대적인 사명으로 부름받아 어느곳이나 달려가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이나 아침이나 밤이나 낮이나 거침없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불의 전도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며 질서가 없이 어느곳이나 달려가서 복음 전하시는 현장을보고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나라를 이루시려고 박복사명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독영광 돌립니다. 안동 지역 초교파를 초월하여 가족세트전도 12주과 정중 3회차에 참석한 모든목회자들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큰도전을 받았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합쓰기를 원하며 다음 가족세트전도날을 손꼽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안동광음교회 임숙화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여성이 행복한 나눔 가게, 15호점 오픈

GS홈쇼핑 1억 6천만 원 후원으로 문래동 사옥 인근에 열어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의 사회적 기업 ‘행복한나눔’이 지난 1월 17일(수) 서울 영등포구에 15번째 매장(문래점)을 열고 개점행사를 진행했다. ‘행복한나눔’은 소외이웃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기증품을 판매하는 기아대책의 나눔가게다. GS홈쇼핑은 행복한나눔의 오랜 후원기업으로, 사옥이 위치한 문래동 인근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점에 힘을 보탰다. GS홈쇼핑은 매장 개점을 위한 준비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후원하고, 물품 6,000여 점을 기부했다. 또한, 임직원들은 향후 매장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 기아대책과 GS홈쇼핑은 2010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GS홈쇼핑 사옥 앞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나눔바자회를 진행해 왔다. 누적 판매금액은 4억여 원에 달하며, 수익금은 기아대책에 기부돼 국내 및 해외 구호 사업에 사용됐다. 이날 개점식에서 고은아 행복한나눔 이사장(서울극장 대표),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주운석 GS홈쇼핑 상무 등 내빈들이 직접 물품을 판매했다. 고은아 행복한나눔 이사장은 “문래점 오픈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행복한나눔이 지역 여성과 소외계층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한나눔 문래점은 향후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소외계층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수익의 일부는 영등포구 내

소외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행복한나눔은 나눔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에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나눔가게 ‘행복한나눔’과 공정무역커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세군, 2018년 군국음악캠프 통해 미래 음악인 양성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지난 1월 9일(화)부터 12일(금)까지 4일 동안 과천 사관학교에서 2018 군국음악캠프(지휘자 워크숍)를 개최했다.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이 캠프에 130여 명이 참석해 악기별 오디션을 가진 후 4개 악대로 편성돼 구세군의 정통음악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서는 특별지도강사로 임종완 교수(서울 후생원 악대 상임 지휘자), 정경 교수(영악가, 현 국인대교수), 백호열 대위(현 공군 사관학교 군악대장)이 함께해 참가자들이 구세군의 미래 음악인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실었다. 현 구세군 음악담당관 박철우 사관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심도 깊은 교육과 많은 연습량으로 음악적

역량을 드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비쁜 일정 속에서도 참여해주신 강사 및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1908년 구세군의 시작과 함께한 브라스밴드(Brass Band)는 금관악기로 구성된 악단으로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한국 최초 브라스밴드를 조직한 이후 현재 60여 개의 악단이 활동하고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흑한의 추위를 무색케 한 청년들의 사랑과 열정”

말씀충만 성령충만, 사명감 충만 ...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

은혜와진리교회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가 1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열렸다.

청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 11:6)라는 주제를 따라 다채롭게 꾸며진 여러 순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견고히 하는 한편 부끄러워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생명과 시간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 바칠 것을 결단하였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수련회 첫날 저녁에 열린 특강에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은혜로운 말씀을 청년들에게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각 성전 청년봉사선교회 신임 임원들에 대한 임명식에 이어 안양성전 청년봉사선교회 권요셉 회장의 기도와 청년 남성중창단의 특색이 있는 후,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말세에 교회를 매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기 위해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여 판단하고 비난하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조 목사는 이번 수련회 주제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개념은 전적으로 성경의 계시와 가르침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자세히 말씀하고, 성장적인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거룩한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청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



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 성도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특강 후에는 성령충만기도회가 이어졌다. 2박 3일간 계속된 수련회에서 청년들은 ‘전체 특

강, ‘말씀 통독과 강해’, ‘나리사랑 교회사랑 이웃사랑’ 프로그램, 새벽예배를 비롯한 여러 예배와 기도회, ‘조별, 성전별 모임’, ‘이집 신학과 말씀 묵상’ 등

다양한 순서에 참여하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만끽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부흥사회 회장

부흥사회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장석우원장



김양인 목사
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발원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김건수 목사
세주안마을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선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주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동우 목사 (세소임교회)	김용덕 목사 (명동제일교회)	일종달 목사 (진주은혜사랑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조남영 목사 (대림발원교회)	김양인 목사 (간현교회)	김인찬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정부용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교회)	오승욱 목사 (연천서복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황은연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성현 목사 (명강교회)	백영자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신동수 목사 (순복음임계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영광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김배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성남 목사 (대림발원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박종영 목사 (오성시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조은혜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양은혜 목사 (정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혜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김연옥 목사 (형북한교회)	이화숙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홍현자 목사 (시랑과영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정환우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서법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정예스미 목사 (예수왕기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목양포커스

한국교회언론회

태극기 없는, 선수단 올림픽 입장 관참은가?

남북은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차관급 실무 회담에서 몇 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그 중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개막식에서 우리 선수단이 태극기를 올세워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반도 가는 어느 나라 국기도 아니다. 다만 과거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생긴 일사적인 것이다. 그런데 태극기를 생략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다는 것은, 국적 상실과 같은 것이다. 동계 올림픽 2주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아연실색이다.

태극기의 역사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으면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고, 1895년부터는 경질(靑紙)을 맞이하면, 거러나 집합마다, 일반인들도 게양하도록 하였다.

1898년 9월 22일자 <독립신문>에서는 ‘국기를 임금처럼, 부모처럼, 형제처럼, 처자처럼, 국민(인민)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태극기는 그야말로,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이며, 국

가기 침략을 당할 때, 저항하는 정신의 지주이며, 국권회복의 상징이다.

그런데도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나라를 피로 지쳐온 조상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들에 대한 오도(誤導)이다.

올림픽은 분명히 개최국이 있고, 그 개최국의 국기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기로 대신한다는 것은, 올림픽 정신이라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올림픽은 각 나라의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며, 선전(善戰)을 다하는 축제지 자리이다. 남북은 1991년 탁구와 청소년축구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한반도기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올림픽에서 국기(國旗)대신 한반도기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다 북한은 갑자기 140명 규모의 예술단 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올림픽 정신과 맞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그들이 와서 예술을 핑계로, 북의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로 악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대한 오점은 물론, 혼란과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지게 되는 것이다.

또 느닷없이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단일팀으로 만든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선수들과 국민들의 원성(恨聲)을 사는 일이다. 선수단을 단일팀으로 구성하려면 선수들과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적어도 몇 달 전에는 팀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팀이 평창올림픽에 온다고 하니, 경황없이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는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수습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열마를 지원할까 될지, 이는 유엔의 대북한 제재에 대한 위반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동계 올림픽 때문에,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되고,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라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당당하게 태극기를 앞장세워 입장하기를 바란다. 누구 마음대로 국기(國旗)를 버리고, 임시 깃발을 들고 나오겠다는 것인가?

목양칼럼

이효상 목사 //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원장

한국교회, 미래전략 있는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주류종교이다. 그러나 당면함과 의연함을 잃고 너무 지향적이다. 그리고 세상이 이끄는대로 끌려가는 모습이다. 마치 머리 카락 잘린 삼손처럼 말이다. 물론 일부의 일탈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침은 빨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난도질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이 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찌보면 한국교회는 늘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있다. 특정세력이 쳐 놓은 프레임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며 일회성 이벤트에 몰려다니다 시간과 기회, 그리고 에너지들 다 낭비하고 만다. 변변한 연구소 하나 없다. 장기지속적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서로 분열하다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최근 10년이 그랬다. 한국교회는 ‘연합’을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대표회장’ 뽑기라는 놀이에 열중하며 분열해 왔다. 그래서 “연합기관 때문에 연합이 안된다”는 어느 교단 전총회장님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지원 예산을 보면 불교가 75%(700억) 정도가 되고 천주교 10%(100억) 기독교가 4%(4억~5억) 미만 정도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6년 5억원 미만이다. 연합기관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것이다. 여

러 행사를 발미로 2~3천만원 정도 밥값이나 용돈을 잡아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생계유지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신 노릇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는 정부의 종교예산 관련 국고지원은 편성과과정부터 집행까지 공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먼저 이런 국민혈세를 안 받겠다는 선언과 함께 받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종교계가 종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고 정부 또한 종교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워 국민의 형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종교 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관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낭비하거나 생체형 기관을 부양시키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가하면 한국사회는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유지해 왔으며, 격한 이념적 갈등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법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학내 종교 차별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해 처사였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문제를 공격해온 종자면에 용역을 맡기며 지원한 것은 종교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독교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종교편향이다.

일제시대에도 하지 않은 일을 민주주의 시대에 기독교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종교활동을 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종교사학에서 사학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각자의 역량대로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전파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삶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본질의 본체이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상식에 반하여 기독교의 정책 및 선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비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 함께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종교차별 전략을 전개해 왔다. 더 나아가 동성애 조장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 일까?

이런 국가인권위의 편향성 시정도 필요하다. 종교사학의 설립이념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얼마나 교회는 장기 전략을 가지고 대처했는가?

또한 형평성 잃은 종교인 과세의 주된 타겟은 ‘개신교’가 아닐까 싶다. 교회는 면세하고 성직자는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의도가 성직자를 근로자로 만들고 노조를 설립하라는 것은 아닌지, 이런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게 된다.



사설

일천만 서명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134년 전 한국교회는 미국교회가 보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국이 보내준 선교사들은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을 개척시켰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대한민국의 건국, 6.25 전쟁과 새마을 운동, 대한민국이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항상 곁에서 도움을 주었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대한민국 건국의 대통령인 이승만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조지 워싱턴대학 학사, 하버드대학 석사, 프린스턴대학의 박사과정 수학을 도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등 4대 기둥 위에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교회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4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북한의 핵무기와 동성애와이슬람,차별금지법 제정, 심지어 한벌까지개정하여자신들이원하는 방식으로의 통일을이두려 하고 있는실정이다.

이에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이슬람,차별금지법 제정,한벌개헌을 반대하는 일천만 서명 기독교지도자 발대식을 가졌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연합기관과 예장 통합과 합동 교단을 비롯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단이 이 뜻에 동참하고개헌반대 일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반되지 않으며 참된 믿음은행위를 낳고, 참된 행위 속에는 믿음이 있다. 행위의 원인과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이어야 하고 또한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천만 서명 발기인대회에서 결의한 서명운동이 행동하는 신앙인의 표징이 되어서 일천만 그 이상의 서명운동으로 확산 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북핵을 무력화시키며 북측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초심을 잃지 않는 목회자되길

2018년도 목사교사가 오는 2월 5일(월)과 6일(화) 양일간 치러진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의 배출은 우리교단의 내일이요 비전인 것이다.

한 사람의 목사가 배출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작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 가족과 친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정성어린 후원들이 모여져 신학 4년, 대학원과정 2년, 현장 목회 수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목사로서의 무게를 책임과 사명을 부여 받게 된다. 이런 목사교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길 바라며 처음 품었던 그 마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변치 않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학교육에 임하였던 당시의 초심을 잃지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보람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립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엡 4:7-12)

성경은 목사의 직분과 그 목표에 대해 밝히 증거하고 있다. 목사는 양무리를 돌보며 특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요, 그사역의 목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의도하신 이 뜻과 이 방법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날 목사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부족한 없이 받들어지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절대적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혼잡한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 되었다. 부디 시대의 풍조에 물들지 말고, 환란주의와 다원주의를 단호히 물리치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가고 말씀 앞에 비로서는 길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원원장 조옥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요한복음 4장 1-6절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비교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셨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손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말씀이 더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하였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안다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필자 요한은 성령세례를 말하고 있는데바리새인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하며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 앞에서 여인을 만나는 배경이 나타납니다.

3장 니고데모와 4장 여인의 비교가 나옵니다. 첫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였고, 거듭남에 대해 어머니의 뱃속을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인간의 입장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사모하는 여자가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갈등이 심했습니다. 사울 왕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어우러져 지냈고, 다윗 왕은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지냈고,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은 나중 합쳐져 다윗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때 이방여인을 받아들여 우상숭배가 많아 남유다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으로 갈라졌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10지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 유다지파로 예배를 드리기에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할 때 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제사장을 만들고 절기도 비슷하게 흉내 내어 만들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BC 722년 앗수르에게 망했고 앗수르의 정책은 모두 홀로려는 반란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이 혼합이 되어 북이스라엘은 순수성이 파멸되고 혼혈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남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였지만 포로수용소처럼 지역을 만들어 그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남 유다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보고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경멸하였습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갈릴리 사람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배드리러 하다가 사마리아지역에서 살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생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종시키려 했습니다. 증거는 없으나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임으로 모든 탓을 사마리아인에게 돌렸습니다. 유대전통 신앙인들이 그렇게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다 끌어 안기위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로 하였습니다. 계사록에 유다의 2지파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로 완성되었습니다. 정통성은 항상 파벌을 만듭니다. 니고데모는 남지파이며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이라 차별합니다. 차별은 철폐하고 차이는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차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만든 것은 사람이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인은 생산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고 교회와 세교 성장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역할은 상당했지만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만나나 낮에 만나나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아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 카이노스와 크레노스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개인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더 중히 여기십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신앙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흥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증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6-279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예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예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로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